

아베, 지지율에 취해 거침없는 우익 행보

아베노믹스 성과 지지율 60%

취임 후 4년 경쟁자 없이 독주

전쟁 가능한 일본 위해 ‘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26일로 취임 4년을 맞았다.

그는 2012년 12월 자민당 총재로 중의 원 선거를 진두지휘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뒤 총리에 올라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미일동맹 강화 등에 힘을 쏟아 일정 부분 성과를 이끌어냈다.

다만 그가 강조했던 디플레이션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 등은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쟁점의 향후 진행 추이에 따라 2018년 9월로 만료되는 자신의 임기 연장 여부, 또 자신의 최대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평화헌법 개정 문제의 향배도 갈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순항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올해 들어 50% 전후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정권 운영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 11월 들어서는 3년만에 60%를 돌파했다.

또 지난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을 합쳐 과반수를



얻으며 중·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등 선전했다. 올들어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등 아베노믹스도 어느정도 성과를 나타내자 “일본은 정치도 경제도 안정되고 있다”(아베 총리), “정치는 결과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라는 등의 이야기도 나왔다.

일본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인 미일동맹도 종전 민주당 정권에 비해 아베 정권들어 더욱 공고해졌다. 여기에 그의 보수 편향 노선도 일본 사회의 보수화 바람과 맞물리면서 지지율 제고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27일 오후(현지시간)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 진주만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 희생자에 함께 헌화하고 추모하는 것으로서 공고한 미일 동맹을 전 세계에 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아베 정권의 취약점도 속속 드러났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소비세 인상(8→10%)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2년반 연기하기로 했다. 2015년 10월에서 한차례 연기했던 것을 두번째로 연기한 것이다. 그동안 아베노믹스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음을 자인

한 셈이었다.

아베 총리에게는 내년에 장기집권 및 개헌 로드맵 달성 여부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다음달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안보·경제 면에서의 조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전격 회담해 미일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측 부담 확대 문제나 아베 총리가 공을 들이는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 입장은 공고하다.

이달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방영토에서의 공동 경제활동 문제로 아베 총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여기에 한일 외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한일 정부간 합의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권의 대선주자들이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정치 상황에 따라 아베 총리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올 수도 있다.

물론 아베 총리는 이들 과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현안의 향배에 따라서는 별다른 당내 경쟁자가 없이 4년 내내 독주해 온 아베 총리의 당 장악력에도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㉔ 동진 대표 문벌 사안

사안(謝安, 320~385)은 동진의 진군 양하 출신으로 자는 안석이다. 북중국을 통일한 전진의 부견이 남하하자 비수대전에서 대승을 거둬 동진정권을 지켰다.

사씨 가문은 동진의 대표적인 문벌로서 남야 왕씨와 함께 동진 귀족 세력의 중심축이었다. 비수대전에서 큰 역할을 한 사씨는 동생이고, 사현은 조카였다. 동진의 유명 여류 시인 사도원은 사안의 형 사혁의 딸이다. 왕씨와 사씨는 혼맥으로 맺어졌다. 왕씨의 둘째 아들 왕용지가 사도원의 남편이다. ‘왕사가문’ 빼고는 동진의 귀족사회를 논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동진 중기 왕씨 세력이 점차 약해지자 사씨가 집권했다.

그는 대족 사씨 집안의 중심이었다. 명가의 후손으로 일찍부터 명성이 드

뢰지를 맞이하여 군사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

비수싸움은 천하를 거루는 일전이였다. 전진의 부견은 보병 60만과 기병 27만을 동원해 회하의 지류인 비수를 도강했다. 그러나 지류체계에 혼선이 생겨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해 동진군이 기습을 해 전진의 대패로 종결되었다. “한 마리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백마리의 개가 그 소리를 듣고 짖는다”는 옛말처럼 일부군의 소란이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져 대패한 것이다. 황제 부견조차 부러진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은채 간신히 수도 장안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결국 이 싸움으로 전진은 무너지고 부견도 절에서 목졸려 죽었다.

당초 동진군의 총지휘를 맡은 사현은 양쪽의 병력 차가 너무 커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친구 장현을 사ian에게 보내 계책을 받아오도록 했

비수대전 승리 이끈 전술가

높았고 서벌에도 능해 행서를 잘 썼다고 한다. 당의 이사진은 그의 필체를 자유롭고 활달해 용호(龍虎)의 기세를 갖추었다고 평했다. 관직에 큰 뜻이 없이 시를 짓고 풍경을 즐기는 여유자작한 삶을 즐겼다. 동진 정부의 계속된 요청에도 관직을 거절했다. 회계 동산에 정원을 꾸며놓고 왕희지, 허순, 승려 지둔 등과 교류하였다. 353년 3월 왕희지 등과 난정에서 시문을 짓고 글을 쓰니 후일 천하의 걸작인 왕희지의 난정서가 탄생했다. 나이 40이 넘어 관직에 진출했다. 오랫동안 동산에서 은거하다가 벼슬길에 나선 일을 두고 후일 동산재기(東山再起)라는 고사가 탄생했다. 군권을 장악한 군벌인 환온 휘하에서 사마로 재직했고 효무제 때는 중서감과 녹상서사를 지냈다. 시중 왕탄지 등과 힘을 합쳐 환온의 제위 찬탈을 막았다.

동진의 중심 인물이 된 그에게 가장 큰 현안은 전진의 남하 문제였다. 전진의 부견은 왕망의 보좌에 힘입어 내력을 개척하고 외지에 힘써 전연을 멸망시키고 북중국을 통일했다. 그에게는 동진 군대의 양축인 서부와 북부 세력의 균형이 가장 시급했다. 조카인 사현에게 북부를 관장케 하고 서부는 환온의 동생인 환충에게 일임했다. 사현의 북부군은 중원의 평성 출신인 유

다. 사안은 온종일 바둑만 두고 일인 반구 전략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어둡자 사현, 사석 등을 불러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한다. 그의 심오원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후일 비수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소식을 듣고도 바둑을 멈추지 않았다. 손님의 면전에서 기뻐하는 것은 재상의 체모가 깎인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린애가 마침내 적을 무찔렀구나”라며 별일 아닌 듯이 바둑을 계속 두었다. 그러나 바둑을 마치고 안채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들떠 문득에 나막신의 굵이 부러졌다고 한다. 비수의 승리로 동진은 멸망의 나락에서 간신히 살아났다.

공으로 건강현공에 봉해졌다. “부씨가 기를유어지고 패배한 것을 틈타 중원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해 동생 사석에게 명해 낙양, 청주, 연주 등을 공격토록 했다. 그러나 이후 동진 조정이 문란해지기 시작했다. 재상 왕탄지의 아들인 왕국보를 사위로 삼았는데 품성이 좋지 않았다. 효무제에게 정을 개척하고 외지에 힘써 전연을 멸망시키고 북중국을 통일했다. 그에게는 동진 군대의 양축인 서부와 북부 세력의 균형이 가장 시급했다. 조카인 사현에게 북부를 관장케 하고 서부는 환온의 동생인 환충에게 일임했다. 사현의 북부군은 중원의 평성 출신인 유

리덩후이 전 총통 “대만 개헌 지금이 적기”

‘중신제’ 국민대회대표 수정

대만에서도 개헌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이 지난 25일 대만의 제헌절을 맞아 “지금이 헌정체제를 바꿔야 할 적기”라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26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리 전 총통은 ‘리덩후이 기념회’의 왕연권(王燕輝) 비서장 주도로 개설된 ‘헌법 지금 바꾸자’(憲政現在改)라는 사이트를 통해 “헌정개혁을 늦추는 것은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 지금 바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민주의(三民主義) 이념을 바탕으로 5권분립(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고시원, 검찰원)의 중앙정부 체제인 중화민국 헌법은 1946년 12월 25일 제헌국민회의가 난징(南京)에서 의결 제정한 뒤 이듬해 12



리덩후이 전 총통

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패퇴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1991년에야 1차 개헌이 이뤄진 이후 2005년까지 7차례의 크고 작은 헌법 개정이 단행됐다.

대만의 헌법 ‘중화민국 헌법’은 영토 범위를 중국 대륙까지 포괄하면서 총통 선출권을 전 지역별 ‘국민대회대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국민대회대표를 중국에서는 선출할 수 없는 까닭에 한변 선출된 국민대회대표가 사실상 중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도 낳았다.

대만내에서는 현재 기존 헌법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는 개헌여론이 가장 높은 편이다.

중화민국 헌법을 대만 헌법으로 바꿔 양안의 현상을 타파하고 대만을 정상국가로 바꾸자는 개헌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대만의 독립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과 함께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있다.

연합뉴스

소고기 둔갑 오리·플라스틱 쌀 기상천외 중국 짝퉁 식품 시장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산 가짜 쌀 소동이 벌어진 데 이어 중국에서 오리고기를 소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한 음식점 체인이 발각되는 식품 사고가 불거졌다.

26일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최근 나이지리아 라고스 세관이 최근 밀반입된 2.5t 규모의 가짜 쌀을 압류 조치한 일로 중국 내에서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세관당국이 아무래도 쌀처럼 보이지 않는 이들 쌀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고서야 PVC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진 가짜 쌀임을 확인했다. 당국이 성분을 확인하려고 직접 밥을 지어봤으나 죽으로 변해버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나 하루도 라고스 세관장은 “이들 가짜 쌀이 축제 기간 시장에서 팔리고 밀수로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쌀의 근원지가 중국이 아

니냐는 외신들의 의혹 제기가 나오자 나이지리아 주재 중국대사관은 “과도한 연상이며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하기 위한 조작극”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 중국 제조업체가 자국산임을 실토했다. 식용이 아닌 레스토랑 진열대에 놓일 용도로 제작된 모조식 품이라는 것이다.

모조 쌀 소동에 이어 중국 현지에서는 전국에 200여 개 점포를 두고 있는 한 레스토랑 체인점이 오리고기를 소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이 들들나 발각 뒤집혔다.

펑파이는 고기 뷔페점 한리쉬안(漢麗軒)을 집중 취재한 끝에 오리 앞가슴살을 분쇄해 붉은색 간장을 끼얹은 뒤 소고기인 것처럼 위장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매장에서 고객들은 49위안(8400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소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돼 있다.

연합뉴스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 형 일 : 2017. 1. 12(목)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믿음이 있는 대학·민음을 주는 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오후 3시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2017. 2. 8(수) 오전 10시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2017. 2. 8(수)오후 3시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8(수)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 자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